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2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0.16~2025.10.2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응, 사무감사, 칭다오(컨테이너/입항), 크루즈, 감귤
경제·관광	관광객, 크루즈, 수출, 소상공인, 마이스
지역·사회	청년, 범죄, 불법, 사건, 외국인

※ 분석 기간 : 25.10.16.~25.10.2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응	- 4.3 역사 왜곡 대응 강화 -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 지하수 요금 체계 개선 검토
	사무감사	- 행정시장 권한 한계 지적 - 제주-칭다오 항로 준비 부족 -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
	칭다오(컨테이너/입항)	- 제주-칭다오 정기 항로 개통 - 물동량 확보 문제 대두 - 검역·통관 시스템 미비 지적
	크루즈	- 올해 크루즈 관광객 64만명 돌파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인기 - 10만톤 미만 크루즈 강정항 입항 증가
	감귤	- 상품 외 감귤 유통 단속 강화 - 감귤 열과 피해 재해보험 개선 요구 - AI 스마트 APC 가동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포켓몬' 행사, 중문단지 활력 견인 - 제주 관광 '바가지 논란' 재점화 - 8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유지
	크루즈	-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 - '제주 준모항' 체험단 100:1 경쟁 - 강정항 중심 편의 증진 및 연계
	수출	- 9월 제주 수출, 역대 최고 증가율 - 반도체·의약품 수출 급증이 견인 -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과 과제
	소상공인	-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안 반발 - 모바일 간편결제 100억 돌파 - 맞춤형 금융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마이스	- MICE 유치 실적 급증 및 인프라 확대 - MICE 행사 트렌드 변화와 유니크베뉴 역할 - 제주 MICE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청년	- 제주 청년몰 공실을 심각 - 제주 청년 캄보디아 취업 사기 - 제주 청년 대상 행사 다수 개최
	범죄	- 제주 관계성 범죄 심각 수준 - 투자 리딩 등 신종 사기 기승 - 제주 외국인 범죄 증가 및 대응
	불법	- 흡연소 불법 도축·유통 적발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 상품외 감귤 불법 유통 단속
	사건	- 해녀 조업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카트 체험장 화재 사망사고 조사 - 교통사고 및 차량 화재 빈발
	외국인	- 제주 외국인 범죄 대응팀 발족 -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증가 - 외국인 연루 절도 등 사건 발생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0월 16일~10월 2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44건임
 - 정치·행정 분야 404건, 경제·관광 167건, 지역·사회 273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응, 사무감사, 청다오(컨테이너/입항), 크루즈, 감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응	- 4.3 역사 왜곡 대응 강화 · 제주도, 4.3 학살 주역 함병선·박진경 비석에 객관적 사실 기반 안내판 설치 검토 지시함. 4.3 진상조사보고서와 연계한 자문단 구성 후 협의 거쳐 추진할 방침임 · 4.3 역사 왜곡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규정의 형식적 하자 등 검토 후 철거 등 적극 대응 방침임. 국회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 포함 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해 적극 건의 및 협력할 계획임 -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	----	--

정치·행정	대응	· 제주도, 관광지 및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민관 협동 대책회의 열어 3 단계(예방-모니터링-제재) 관리 체계 구축함.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 의무화 및 샘플 모형 비치 등을 추진함 · 중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함. 해당 축제는 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 제외 및 재적발 시 예산 지원 제한 등 엄정 대응 방침임. 숙박, 교통 등 7개 분야 민관협의체 점검도 확대할 계획임 - 지하수 요금 체계 개선 검토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 기반 요금 부과 방식의 문제점 지적됨. 계량기 미설치 관정 다수 존재 및 염지하수 추정치 부과 문제 등이 제기됨 · 양영식 도의원, 정액요금제로의 환원 조례 개정 시급성 주장함. 김애숙 정무부지사, 지적에 공감하며 물정책과와 협의해 조례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사무감사	- 행정시장 권한 한계 지적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인사·입법권 부재로 행정시장의 정책 추진 한계가 지속 지적됨. 민원 해결 어려움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문제도 제기됨 · 현지홍 의원, 도지사가 부시장 임명하고 5급 이상 징계도 도 인사위가 의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 부재 지적함. 김완근 시장, 조례 제·개정 권한 부재 등 한계 토로하며 권한 강화 필요성 언급함 - 제주-칭다오 항로 준비 부족 ·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에서 항로 개설 관련 제주도의 사전 준비 부족 문제 집중 제기됨. 물동량 부족 문제와 더불어 검역·세관 시스템 미비로 생사료 등 수입 차질 지적됨 · 이승아 의원, 도가 모든 준비 완료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준비 미흡 비판함. 진명기 부지사, 초기 미흡 인정하며 검역·세관 문제는 향후 조치해 나갈 사항이라고 답변함 - 도의원 선거구 확정 논란 · 도의회 행정자치위 행감에서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 문제 도마 위에 오름. 인구 상한선 초과로 봉개동 분리 및 아라동을 편입 방안 유력 검토 중임 · 김경미 의원, 잦은 선거구 변경 시 주민 혼란 우려 및 기초단체 부활 고려한 신중론 제기함. 송창권 의원, 도의원 정수 증원 포함 제주특별법 개정 통한 특례 마련 필요성 주장함
	칭다오(컨테이너/입항)	- 제주-칭다오 정기 항로 개통 · 1968년 제주항 무역항 지정 이후 57년 만에 첫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됨. 10월 16일 칭다오서 취항식, 18일 제주항서 첫 입항식 개최됨. · SMC 르자오호(712TEU급) 매주 1회 왕복 운항 예정임. 물류비 62% 절감 및 운송 시간 최소 2일 단축 등 경제 효과 기대됨. - 물동량 확보 문제 대두 · 항로 안정적 운영 위해 연간 1만 TEU 이상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나 초기

정치·행정	칭다오(컨테이너/입항)	물량 부족 심각함. 첫 운항 시 입항 40TEU, 출항 6TEU에 그쳐 손익분기점 크게 미달함 · 제주도, 물동량 부족 따른 손실 3년간 보전 계약 체결함. 연간 손실 보전금 40~50억 추산, 도정 전 부서에 물동량 확보 총력 주문함. 빈 컨테이너 선적 논란도 발생함. - 검역·통관 시스템 미비 지적 · 도의회 행감에서 항로 개설 사전 준비 부족 지적하며 검역·세관 시스템 미비 문제 제기됨. 특히 양식업계 희망 품목인 생사료 수입이 검역 문제로 차질 빚음 · 제주도, 검역 시스템 미비 인정하며 향후 보완 약속함. 물동량 확보 위해 전문 소독업체 유치 등 인프라 확충 및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 추진 계획 밝힘.
	크루즈	- 올해 크루즈 관광객 64만명 돌파 · 10월 17일 기준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 64만 5964명 기록, 지난해 연간 실적(64만 1139명) 넘어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연말까지 75만명 전망됨 · 10월 17일 하루 3척 입항하며 1만 278명 방문, 올해 두 번째 1만명 돌파 기록 세움. 제주도,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강화 결과로 분석, 수용 태세 강화 중임.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인기 · 제주도가 기획한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 결과 12팀(24명) 선발에 1198팀(2396명) 신청, 약 100대 1 경쟁률 기록함. 제주 출발 크루즈 여행 매력과 승선비 지원 등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됨 · 선정된 체험단은 11월 3일부터 4박 5일간 아도라 매직시티호 타고 일본, 중국 거쳐 제주 귀항 예정임. 체험 후 만족도 조사 및 후기 제출, 향후 정책 수립 및 홍보에 활용 계획임. - 10만톤 미만 크루즈 강정항 입항 증가 · 도의회 행감서 제주항 입항 지침(10만톤 미만)과 달리 10만톤 미만 크루즈의 강정항 입항 비율 증가 지적됨. 2024년 21.4%에서 2025년 36.3%로 급증함. · 선사 요청 및 제주항 선석 기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한권 의원, 제주항 크루즈 감소는 제주도 지역경제 효과 감소 의미하므로 대책 마련 촉구함.
	감귤	- 상품 외 감귤 유통 단속 강화 · 제주도, 전국 도매시장 합동 단속 통해 상품 외 감귤 15건, 2130kg 적발함. 소과·대과 등 규격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위반 등이 주요 적발 내용임 · 도, 적발 감귤 출하 선과장 추적해 과태료 부과 방침이며, 10월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선과장 대상 단속 강화함. 상습 위반 선과장 집중 감시 체계 구축 예정임. - 감귤 열과 피해 재해보험 개선 요구 · 이상기후로 감귤 열과 피해 급증하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서 제외돼 문제 제기됨.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냉해·태풍 등과 달리 보

정치·행정	감굴	상받지 못함 · 임정은 도의회 운영위원장,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 제출,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서 만장일치 채택됨. 보험 보상 범위에 열과·낙과 포함 및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촉구함. - AI 스마트 APC 가동 · 제주시, 100억 투입해 AI 기술 적용한 '하귀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구축 완료 및 일부 시설 가동 시작함. 연면적 4007㎡, 지상 3층 규모로 AI·로봇 기술 접목 자동화 설비 갖추 · AI 카메라·비파괴 광센서로 감굴 색상, 형상, 결점 등 정밀 선별 가능함. 하루 100톤 이상 처리, 작업 효율 50% 향상 기대됨.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 디지털 관리로 경쟁력 제고 전망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크루즈, 수출, 소상공인, 마이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포켓몬' 행사, 중문단지 활력 견인 ·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in JEJU' 행사가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문단지 방문객은 전
-------	-----	--

경제·관광	관광객	년 동기 대비 42.8% 증가, 소비지출액은 61.9%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여미지식물원 내 14m 높이의 '알로라 나시' 캐릭터 전시 및 오리지널 스토어 운영 , '포켓몬 런' 행사 전 회차 매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 '포켓몬 런'은 참가자 절반 이상이 행사 참여를 위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됨. - 제주 관광 '바가지 논란' 재점화 · 축제 현장의 부실 김밥(4000원), 비계가 가득한 흑돼지, 양이 현저히 적은 '반 쪽 철판오징어'(1만 5000원) 등 먹거리 관련 '바가지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이어 확산되며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함 · '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가 종합 3위로 반등했으나 , '물가·상도의' 항목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땀질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됨 - 8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유지 · 지난 8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만 55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함.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152만 6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으며, 방한 외국인 중 제주 점유율은 12.3%임 · 다만 시장 다변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음. 8월까지 누적 방문객 중 아시아권 비중이 94%로 압도적이며 , 이 가운데 중국(112만 6081명),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이 전체의 85.5%를 차지하며 제주 외국인 관광 시장을 주도함.
	크루즈	-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 · 지난 10월 17일, 대형 크루즈선 3척(제주항 1척, 강정항 2척)이 동시 입항하며 하루 기준 1만 278명의 승객이 제주를 방문함.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1만 명 돌파 사례로,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올해 10월 17일 기준, 누적 크루즈 관광객은 64만 5964명(267회 입항)을 기록 , 이미 작년 연간 실적(64만 1139명)을 넘어섬. 제주도는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75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수용 태세를 강화 중임 - '제주 준모항' 체험단 100:1 경쟁 ·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영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음.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 운영되어 1843명의 관광객이 제주에서 크루즈를 타고 해외로 나감. · 11월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의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모 결과, 12팀(24명) 모집에 1198팀(2396명)이 신청해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이는 제주 출발 크루즈 여행 상품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됨 - 강정항 중심 편의 증진 및 연계 · 올해 크루즈 관광객의 73%(163회, 47만 4601명)가 강정항을 통해 입도, 크루즈 관광의 중심이 강정항으로 안착화되고 있음 · 증가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 내 NH농협은행의 글로벌 ATM이 신규 설치됨. 또한 서귀포시는 입항 비중이 높은 '아도라 매직시티'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원도심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상권 연계를 도모함

경제·관광	수출	- 9월 제주 수출, 역대 최고 증가율 · 지난 9월 제주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8.2% 증가한 3810만 달러(일부 기사 383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제주 무역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월간 수출 증가율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12.6%)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 수출 급증에 힘입어 9월 무역수지는 118만 달러 흑자를 기록, 올해 들어 세 번째 월간 흑자를 달성함. 반도체 고성장이 중심을 이룬 가운데 농수산물,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함께 선전한 결과로 분석됨 - 반도체·의약품 수출 급증이 견인 · 9월 수출 급증은 반도체가 주도함.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6.1% 급증한 285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74.8%를 차지함. 주요 수출국인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450.6% 폭증하며 증가세를 견인함 · 의약품 수출액 또한 93만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832.7% 급증하며 1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감. 기존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일본, 브라질 등 신규 판로를 확보하며 시장 다변화 성과가 나타남 -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과 과제 ·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첫 국제 컨테이너 정기 항로가 개설됨. 제주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물류비 절감, 운송 기간 단축 등을 기대하며 환영 입장을 밝힘 · 초기 물동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선사 손익분기점은 1회당 200TEU이나, 칭다오발 첫 입항 물량은 40TEU, 제주발 첫 수출 물량은 6TEU에 불과함. 제주도가 선사 운영 적자 차액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항로가 개설됨
	소상공인	-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안 반발 · JDC와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함 ·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화장품, 생활소비재, 기념품 등 골목상권 핵심 품목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함 - 모바일 간편결제 100억 돌파 · 올해 10월 12일 기준, 제로페이로 통한 제주지역 모바일 간편결제(모바일 페이) 이용액이 101억 5천만 원을 돌파함. 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금액(약 50억)의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임 · 전체 결제액 중 외국인 전용 '알리페이' 이용 비중이 50%(약 50억 3794만 원)에 달함.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 증대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도내 가맹점도 3만 1352곳으로 확대됨 - 맞춤형 금융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안심동행 특별보증' 협약을 맺고 3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운영함. 신용평점 710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 튜터 100명이 소상공인 100곳을 6주간 방문, 카카오톡 채널 활용법 등 온라인 마케팅 멘토링을 진행함. 또한 금융취약층을 위한 '제주흔디론' 지원도 수요 급증에 따라 예산이 증액됨

경제·관광	마이스	- MICE 유치 실적 급증 및 인프라 확대 · 제주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MICE(마이스) 유치 실적이 올해 9월 말 기준 34건, 5281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인원수 면에서 이미 초과 달성한 수치로, MICE 시장 성장을 견인함. ·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1파크',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등 신규 유니크베뉴 16곳과 마이스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함. 신규 베뉴 10개소에 지원금(각 300만원) 지급 및 20명 이상 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MICE 행사 트렌드 변화와 유니크베뉴 역할 · 최근 MICE 행사 트렌드는 단순 회의실을 넘어,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유니크베뉴에서 만찬, 리셉션 등을 진행하는 추세임. · '생각하는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 유니크베뉴이자 A등급 평가를 받은 대표 정원형 베뉴로 , 웰니스 중심 MIC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회의 문화를 제시하고 있음. 11월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 '유니크베뉴 존' 운영 등 실질적 활용 확산을 추진할 예정임. - 제주 MICE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마이스 행사장소 발굴과 함께,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5개를 개발 및 선정함. · 선정된 상품은 '9.81 그레비티 챌린지'(9.81파크), '나무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생각하는 정원), '화산과 용암의 섬 라프빌레'(제주라프), '자연에 물드는 꽃자왈 리트릿 투어'(환상숲꽃자왈공원), '제주의 계절을 오롯이 담아내다'(회수다옥) 등임.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청년, 범죄, 불법, 사건, 외국인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청년	- 제주 청년몰 공실을 심각 · 제주지역 청년몰 공실을 전국 최고 수준 기록함. 지난해 폐점한 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 포함 시 65% , 제외 시에도 45%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은 공실을 확인됨.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20개 점포 중 11개만 입점, 공실을 45% 기록함. · 최근 청년 입점 희망자 모집했으나 신청자 전무함. 포털사이트 휴무일 공지 미흡 및 폐점 청년몰 '영업 중' 표시 등 관리 문제 지적됨. 총 54 억 예산 투입에도 활성화 부진하며, 운영 전략 개선 시급성 대두됨. - 제주 청년 캄보디아 취업 사기 · 고수익 미끼로 제주 청년들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기는 모집책 검거됨. 모집책은 피해자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받음. 피해 청년들은 현지에서 감금, 협박, 폭행 등을 당한 후 탈출하거나 가족 송금 후 풀려남. · 제주에서 캄보디아 관련 감금·실종 신고 총 9건 접수됨. 이 중 7명은 귀국했으나 2명은 아직 국내 미입국 상태임. 경찰은 미귀국자 안전 확인 및 범죄 관련성 수사 진행 중임. - 제주 청년 대상 행사 다수 개최 · 한국청년회의소(JCI KOREA) 제73차 전국회원대회 제주월드컵경기장서
-------	----	---

지역·사회	청년	24일, 25일 개최됨. 전국 300여 개 지방JC 회원 3000여 명 참가 예상됨. 드론쇼, 축하 공연 등 마련, 일부 프로그램 일반 도민 및 관광객에게 개방됨. ·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21일 개최, 오지마라토너 안병식 멘토 강연 진행됨. '청년과 로컬을 잇다' 행사 25일 자구리공원에서 열려 청년기업 부스 및 공연 등 진행됨. 과수 분야 청년농업인 대상 '황감제' 경진대회 개최, 혁신사례 공모함.
	범죄	- 제주 관계성 범죄 심각 수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급증함. 2025년 9월 말 기준 711명으로, 전년 430명 대비 65.3% 증가함.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상자 큰 폭으로 증가함. · 올해 교제폭력으로 인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 발생함. 피해자는 과거 교제폭력 신고 이력으로 모니터링 대상자였다가 해제된 상태였음.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 15명을 통해 예방 및 사후관리 중이나 인력 부족 문제 지적됨. - 투자 리딩 등 신종 사기 기승 · 투자회사를 사칭해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됨.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함. 상장 예정 코인 구매 명목으로 가짜 거래소 가입 유도 후 투자금 편취함. · 제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팀, 올해 5개 사기 조직 65명 검거, 44명 구속 송치함. 피해자는 총 97명, 피해액은 30억 원 초과함. 경찰은 단기간 고수익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 높다며 주의 당부함. - 제주 외국인 범죄 증가 및 대응 ·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형사 입건된 외국인 2795명에 달함. 2024년 610명으로 증가 추세 보임. 교통 사범이 가장 많고, 폭력, 지능, 절도 사범 순으로 나타남. 무사증 입국 허용 후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 증가함. · 제주경찰청, 전국 최초 '외사기동순찰팀' 발족 및 운영 시작함. 외국어 가능 경찰관 선발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순찰 및 112 신고 현장 지원 등 담당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목표함.
	불법	-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적발 · 제주 자치경찰,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무허가 흑염소 불법 도축장 적발함. 피의자 6명 검거, 이 중 3명 구속됨. 건강원 운영자들이 외국인 고용해 2021년부터 흑염소 500여 마리 불법 도축함. · 도축된 흑염소는 흑염소즙으로 가공되어 판매됨. 판매된 흑염소즙 포장에는 법적 표시사항 누락됨.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약 10억 원 추정, 추징 보전 신청 예정임. 비위생적 환경 및 잔인한 도축 방식 확인됨.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 가을철 중국 타망어선 조업 재개됨에 따라 제주 해경 특별단속 실시함.

지역·사회	불법	타망어선은 어획 강도 높아 '씩쓸이 조업'으로 불리며 어획량 축소 기재 등 문제 발생함. 최근 3년간 하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증가 추세 보임. · 단속 위해 대형 경비함정 4척, 항공기 2대 추가 배치함. 조업일지 부실 기재, 어획량 축소, 입출역 위반, 비밀어창 설치 등을 중점 단속함. 무허가 어선 강력 처벌 및 불법 설치 어구 철거 예정임. – 상품외 감귤 불법 유통 단속 · 제주도, 전국 도매시장 합동단속 통해 상품외감귤(비상품감귤) 2130kg 적발함.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시장 등 감귤 반입량 많은 곳 집중 점검함. 적발된 감귤은 규격 미달(소과, 대과), 품질검사 미필, 품질표시 위반 등이 주를 이룸. · 적발 감귤 출하 선과장 추적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예정임.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 예상됨에 따라 단속 강도 높임.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선과장 대상 단속 강화,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방침임. 상습 위반 선과장은 등록 취소 및 집중 감시 예정임.
	사건	– 해녀 조업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가을철 해녀 조업 증가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사고 주의보' 추가 발령함. 올해 8월 말 기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14건 발생, 5년 평균 대비 4.5% 증가함. 최근 5년간 총 81건 사고 발생, 심정지(39.5%)가 주요 원인임. · 사고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 80% 넘어 각별한 주의 요구됨. 소방 당국, 유관기관 협력 통해 안전수칙 홍보 및 예방 활동 강화함. 어촌계 해녀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지속 추진 방침임. – 카트 체험장 화재 사망사고 조사 · 지난 5월 서귀포 카트장서 10대 관광객 몰던 카트 충돌 후 화재 발생 사건 관련 조사 진행됨. 피해 학생 전신 화상 입고 치료 중 사망함. 카트장 총괄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됨. · 국과수 감정 결과 카트 자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카트 노후 정도, 안전교육 미흡, 안전시설 관리 문제 등 안전관리 부실 판단함. 사업주 대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법리 검토 중임. – 교통사고 및 차량 화재 빈발 ·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20대 남성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이송됐으나 숨짐.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임. ·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서 수학여행단 태운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추돌 사고 발생함. 학생 3명 경상 입음. 제주시 아라1동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5톤 트럭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음.

지역·사회	외국인	- 제주 외국인 범죄 대응팀 발족 · 제주경찰청, 외국인 관련 범죄 및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외사기동순찰팀' 발족함. 기존 기동순찰대 인력 중 외국어 능력 갖춘 경찰관 선발하여 구성함. · 외사기동순찰팀은 외국인 밀집 지역 배치되어 범죄 예방 활동 및 112 신고 시 현장 지원 담당함.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소통 가능 인력으로 구성됨. 도민과 외국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치안 모델 정착 목표함. -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증가 · 제주 무사증 제도로 인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매년 증가 추세임. 2025년 8월 말 기준 1만 738명으로 집계됨. 코로나19 기간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세 보임. · 불법 체류자 중 중국 국적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음. 베트남(6%), 인도네시아(4%) 순임.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자의 범죄 가능성 우려 제기됨. 2020년부터 5년간 외국인 범죄자 3362명 적발됨. 무사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지적됨. - 외국인 연루 절도 등 사건 발생 · 제주시 노형동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1400만원 상당 귀금속 절도 후 도주하다 공항에서 검거됨.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상태였으며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됨. · 과태료 체납으로 변호판 영치되자 위조 변호판 부착 운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적발됨.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3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출국조치 대상 가능성 있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